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및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의 이해

Introduction to the Automobile Safety and Defect
Deliberative Commission and the Korean Lemon Law
(Arbitration on Vehicle Exchange and Refund)

· 기획 : 조상수 책임연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자동차 등록대수가 2천만대를 돌파하고 있는 요즘 시대에 자동차는 우리 생활에 너무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이 맞춰 자동차 사용자의 권익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되고 있고, 그만큼 국가기관의 역할 또한 중요해 지고 있다.

이번 특집에는 자동차 사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러한 제도적 장치의 접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보다 직접적으로 개인 구제방안으로 알려진 한국형 레몬법 즉,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에 대하여 면밀히 알아보하고자 한다.

특집 ① 자동차 피해 구제 방법과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역할
The Consumer's Damage Relief Method for the Automobile Defect or
Non-conformity & the Role of Automobile Safety and Defect Deliberative
Commission

특집 ② 자동차교환·환불중재제도의 이해
The Commentary of The Korean Lemon-law(Arbitration)

특집 ③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 분석
Analysis for Automobile Exchanges and Refund Arbitration

Special
Edition